증인과 땅사기꾼

(행1:1~11)

1.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2.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3.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6.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7.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9.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증인과 땅 사기꾼>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증인과 땅 사기꾼'

땅은 사서 10년을 묵히면 인삼이 되고, 20년을 묵히면 산삼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땅을 투기한다는 생각을 갖고 샀다가 금방 팔고 그러지 말고, 그냥 땅을 사서 오래오래 잊어버리고 있다 보면 땅값은 자연히 늘게 되고, 왜냐하면 어차피 개발이 돼야 되고 개발을 위한 장소는 자꾸 확장돼야 되니까 땅값이 오르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20년 지나면 산삼이 된다.

아~이거 좋은 얘기에요, 땅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뭐 꿈이나 꿔 보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땅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런데 어쩌다 어쩌다 우여곡절 끝에 눈먼 땅문서 하나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평생에 처음으로.

그래 그냥 처박아두다시피 했어요,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집을 정리하면서 문서들을 정리하고 그러는 중에 그 땅문서가 보여서 한번 꺼내어 봤습니다.

궁금해서 봤더니, 땅을 위해서 땅값으로 지불 된 돈이 980만원이에요, 한 1000만원 돈 되는 거지요? 그리고 땅의 평수가 24평입니다. 그래 그 24평 너무나 작잖아요, 사실 땅이라고 소유하고 있기에는.

그게 그 어디인가 봤더니, 강원도 현리에요.

그래서 강원도 현리 그 땅의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부동산을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전화를 해서 그 땅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동산중개업 하시는 아저씨가 되물어요, 혹시 등기상에 여려 명의 이름이 기재돼 있지 않느냐고.

그래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 뭐라 그러던가요, 계획 부동산(?)

그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땅 사기입니다.

서울에서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 강원도의 임야를 그냥 임의의 임야, 너무 가파르고 거친 산이라서 전혀 개발이 불가능한, 묘 자리로도 쓸 수 없는 땅인데, 서울에서 전문가들이 내려 와 가지고 그 임야를 다 삽니다.

사 가지고는, 인터넷이나 매체 등을 통해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광고를 때립니다.

앞으로 몇 년 뒤에 이 지역이 뭐 골프장으로 개발이 된다, 무슨 뭐 무슨 지역으로 관광지역으로 개발이 된다.

제가 받은 봉투 안에도 보니까 광고지가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 광고를 내 놓고는, 그 광고에 근거해서 이런 광고가 다 나올 정도다.

광고라 그러면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쓸 수도 없는 땅을 다 쪼개가지고…
난 그 등기 위에 왜 수십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나 했더니, 그 사람들이 다 공동으로 한 만 평 정도를 산 겁니다.
제일 작은 땅이에요, 그나마 24평이. 제일 작게 사기를 당한 거지요.
공동으로 그 땅을 구매를 한 겁니다. 나는 300평, 많으면 나는 1000평, 이래 가지고.

아하, 평생에 처음 손에 쥐어본, 어떤 분이 주신 거예요.
아는 그 집안사람이, 집안사람이니까 그걸 저한테 줬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땅을 주면서 그렇게 쓸 수도 없는 땅을 줬겠습니까?
평생 처음 손에 쥐어본 땅문서가 땅 사기꾼들한테 사기당한 땅이었습니다, 쓸 수도 없는 땅.
그러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예요, 쓸 수 없는 땅 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본문에 승천하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뭐라 그러시나 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과 관련해서 볼 때,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증인이 있고 땅 사기꾼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증인이 될 것인가 땅 사기꾼이 될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예수 이름을 부르는 땅 사기꾼인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증인인지가 분명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증인과 땅 사기꾼의 경계선이 어디인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처음 나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4복음서가 복음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언이라고 그러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냐, 땅 사기꾼으로 살 것이냐를 결정 지

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되겠다 이거에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중간에 다 떼어내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앞부분과 뒷부분만을 한번 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왜 증인이 될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썼을까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증인이라는 게 별거입니까? 체험적으로 알게 된 사실을 증언하는 자가 증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삼 년 동안 쫓아 다녔습니다.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니라'
주님의 삼 년 동안에 일거수일투족을 다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고, 기억하고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우여곡절을 지나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고,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증인 될 자격이 이미 100% 충분히 다 갖추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는 '증인이 되리라'고 미래형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당장 주님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그러면 다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고, 바다 위를 걸으셨고, 오병이어기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삼 일만에 부활했다.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증인이 될 수 있는데 왜 증인이 되리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들이 증인이 될 수 없는 마음의 상태인 것을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증인이 될 수 없냐 하면,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승천하시려고 하기 직전인데, 제자들의 생각은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들의 마음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 되어 있냐 하면, '아! 이제쯤

이면 주님이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는 조국을 독립시키시고,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다윗 왕 때처럼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까지도 직접 체험을 했어요, 몸으로 겪은 거예요, 이들은.
5감관으로 보며 만지며 겪은 겁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나라가 독립을 하고, 어떻게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을 것이며, 그걸 축소시키면 내가 안정된 경제 기반 위에 높아지는 자리에 서게 되고, 잘 살 수 있느냐에 관심이 다 모아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오시면 왜 증인이 될 수 있고, 무엇이 바뀌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오시면, 성령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자꾸 무슨 기적을 생각합니다, 권능을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당연히 나타날 수 있고, 그걸 부인할 필요도 없고, 부인을 왜 합니까? 그런 게 일어나면 좋지요.
그러나 그게 성령님이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통되고 본질적인 성령님의 전공과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첫 번째 은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달라지는 게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 체험을 해도 그 의미를 몰라요.
이 의미를 알려면 성령님이 오셔야 되고, 성령님이 오심으로서 십자가와 부활의 참 의미가 알려져야 비로소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참 의미가 드러나는 겁니까?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일으키시게 된 이유는 뭡니까?
천국에서, 하늘아버지가 계시는 그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천국이 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의 대상이 천국이고,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아버지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돈 문제가 있다, 자식문제가 놓여 있다, 애인과 말다툼이 생겼다 그럴 때, 그 애인문제보다, 자식문제보다, 돈 문제보다 더 앞서서 내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일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사건을 일으키신 겁니다.
왜요?
십자가 사건에서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현실로서 내 마음의 관심,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왜? 천국에 대해서 내 마음을 첫 번째 현실로 관계하려고, 첫 번째로 내 마음의 관심을 천국에 주려고, 아버지가 계신 그 천국에 마음을 다~ 투자하려고, 마음을 천국에 투자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고, 부활이 일어났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천국이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그 어떤 사실들보다도 먼저 마음을 써야 될 사실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십자가 사건을 체험하고도, 제자들의 마음은 어디에 다 쏠려 있냐 하면, 이제부터 주님이 조국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것인가? 독립국가로 만드실 것인가?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서 우리 개개인이 다 잘사는 나라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박 근혜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와 관심, 미국 국민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와 관심.
공교롭게도 다 새롭게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오바마 대통령도 재선해 새롭게 시작하지요? 중국의 시진핑도 바로 직전에 국가 주석에 됐습니다, 일본의 아베 수상도 얼마 전에 수상 자리에 올랐습니다, 박 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중요한 나라, 미국, 중국, 일본, 대한민국 모두 다 새로운 정부가 시작된 거예요.
거는 기대가 있어요,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잘 사는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그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사기꾼이 누구입니까?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천국을, 첫 번째 내가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될 현실로서 느끼게 해 주심으로써, 그 천국이 첫 번째 현실이 될 때 비로소 '아! 십자가 이래서 일어났구나, 십자가가 내 마음을 천국을 지금 이 땅 위에서 첫 번째 관심거리로 알고 마음이 거기에 투자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고, 부활과 승천이 다 주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간 천국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려 주시기 위해서 있었구나!'라고 천국이 첫 번째 현실이 될 때,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분을 믿으세요!'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이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설교가 어떻게 나오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무병할 수 있습니다, 장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버립니다.
이것은 '강원도 현리의 이 땅이 앞으로 개발이 돼서 앞으로 아주아주 비싼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투자하시면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사기를 치는 것과 똑같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 땅에서 변화될 나의 미래, 개선될 나의 미래로 연관시켜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게 될 때, 이 증언은 땅 사기꾼이 된다 이겁니다.
내가 그렇게 증언하지 않고 살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이제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온 마음의 관심은 이 땅에 있는 일들에 다~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나를 속이는 사기꾼입니다, 나에게 사기 치는 땅 사기꾼인 것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형통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하여간 예수님을 믿으면서 마음의 관심이 이 땅에 묶여있는 사람들, 여전히 묶여있는 거예요.
성령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천국이 첫 번째 현실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천국이 첫 번째 현실로 느껴질 때, 어떻게 내가 이 천국을 지금 누리면서 느끼면서 살아 갈 것인가?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는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천국을 알 때에, 성령님이 오셔서 천국을 현실로 느껴지게 해 주실 때.
그래서 증언이 증인이 의미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성령님이 오셔 가지고, 천국을 첫 번째 대상으로 관심의 대상으로, 현실로 느낄 수 있는 상태가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다 나에게 사기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이단은 이단이라고 규정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면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입으로 온갖 정통교리를 다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신이시며 인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모~든 정통교리의 신앙고백을 다 입으로 외우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첫 번째 관심이 아닌 상태의 말씀을 전하고, 그런 관심을 표명하고 예수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다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당장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늘나라가 느껴지면서 하늘나라가 첫 번째 관심이 되어야 십자가와 부활의 참 의미가 깨달아지고, 아! 이래서 십자가 일어났고 부활을 하셨구나, 그래서 승천을 하신 거구나! 알게 되면서, 비로소 참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얘기지요.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이 가립니다.
이 구름이 가렸다고 하는 건, 승천하셨다고 해서 달 옆에 있는 천국, 태양 옆에 있는 천국으로 가신 게 아닙니다.
태양도 달도 무한한 우주라고 해봐야 다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우주공간이고, 한 차원의 세계입니다.
주님이 가신 천국은, 이것과는 다른 차원의 세계를 말해요.
그러므로 구름으로 가려졌다는 것은, 구름이 의미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허허로운 공간에 구름이 끼면서, 이 땅과 하늘이 구분이 되는 경계선이 됩니다.
그러므로 구름으로 가려졌다는 것은, 이 땅과는 구분되는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증인이 된다는 거는, 구름으로 가려진 세계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구름으로 가려진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는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고, 종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신의 막 핑핑 눈이 돌게끔 돌아가는 사업장보다, 당신 눈앞에 있는 가족보다, 당신의 심지어는 신체, 몸보다도 더 앞서서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 바로, 구름에 가려져 있는 보이지 않는 하늘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거기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아버지가 계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름 위의 세계가 내 마음에 첫 번째 관심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증인으로서 증언해 주는 것이 나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이유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 천국, 아버지가 계신 하늘,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 전부터 계신 그 하늘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첫 번째 관심의 대상으로 삼고, 오늘 하루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살라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증언해야 되는 증인이라 이겁니다.

구름 위! 그러므로 기독교의 증언은, 증인됨은, 구름 잡는 소리입니다.
구름을 잡는 거예요, 구름을 잡아 젖히고 구름 위의 세계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겁니다, 현실로서.
그러니까 현실에서 돈 많이 버는 것보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보다,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것보다, 더 앞서서 기뻐해야 될 대상, 더 앞서서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주는 대상이 구름 위에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증언하면서, 구름 잡으며 사는 자들이 기독교인이고, 구름 위의 세계를 증언하는 자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증인, '내 증인이 된다'는 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 위의 세계가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현실보다도, 앞선 현실로 보이지 않지요?
성령이 안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셨어도 충만히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구름 위의 세계가 현실로 느껴집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대해 죽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내 마음이 이 세상 어떤 일들, 어떤 상황, 어떤 사람에게 뺏겨 있는 이것이 죄임을 알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오시고, 천국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게 현실이 되어 지고, 마음의 관심의 첫 번째 대상이 되어 지면서, 거기에서 마음이 느끼는 행복감을 안고,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가고, 가정에 가고, 학교에 갈 때, 내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참된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어, 구름 위의 아버지의 나라가 첫 번째 관심이요 대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천국에서 허락 되어지는 평강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아버지와 승천하신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과 행복의 증인들이 되면서 살게 될지언정 절대로 예수이름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된다는, 땅 사기꾼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